

천노엘 신부 대한민국 국민 됐다

〈장애인의 아버지〉

광주 무지개공동회 대표이사 국내 6번째 특별 귀화

1957년 선교사로 들어와 광주·전남서 사목활동
1981년 장애인 죽음 계기 국내 첫 ‘그룹홈’ 설립
“지적·자폐성 장애인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지적·자폐성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무지개공동회 대표이사이자 ‘장애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노엘(페트리코 엘 노날·84) 신부가 최근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국적취득은 지난 1957년 선교사로 대한민국 땅을 밟은 지 59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사회복지분야 공로’를 인정해 천노엘 신부에게 특별 귀화증을 수여했다. 국내에서 6번째다.

운정현 광주시장은 신부의 국적취득을 위해 추천사를 쓰는 등 직·간접적으로 귀화를 도왔다.

천노엘 신부는 그동안 고국인 아일랜드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이번 특별 조치로 아일랜드와 대한민국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

아일랜드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천노엘 신부는 1957년 선교사로 대한민국 땅을 밟은 이후 24년간 광주·전남 성당에서 사목활동을 했다. 그는 5살 무렵 한 선교사가 나병 환자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를 보고 사제의 길을 결심했다고 한다.

천노엘 신부가 ‘장애인특수사목’에 뛰어들은 계기는 지난 1981년 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죽음과 직면하면서부터다. 그는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시의 기억을 남겼다.

“19살이던 ‘여화’라는 이름의 소녀가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연고도 없던 그를 병원에서는 해부용 시신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하더군요. ‘여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거절하고 직접 교회 묘지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가 여화의 묘비에 새긴 ‘나를 용서하십시오, 교회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긴 세월 당신을 외면했습니다’라는 말은 평생 금언이 됐다.

그는 이를 계기로 같은 해 대한민국 최초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을 설립했다. 이후 28년 동안 엠마우스복지관 관장을 역임했고, 1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대표이사



천노엘 신부가 지난 5일 광주시청에서 유정현 시장과 국적증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로 재직하면서 장애인들 삶의 질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천노엘 신부는 평소 장애인에 봉사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임을 강조해왔고 이런 신념을 실천했다. 지난 1997년 ‘제1회 장애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봉사를 이유로 상을 받으면 또 다시 ‘너와 나’로 나뉜다”며 거부한 것도 그 때문이다.

천노엘 신부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1년 11월1일 광주시로부터

24번째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그는 “엠마우스복지관을 비롯해 모두 9개 산하 시설로 이뤄진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가 지금까지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장애인 당사자, 부모님,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신 많은 분들, 후원회원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힌즈페터 손톱·머리카락 5월 망월동 안치

추모행사 유가족 참여키로
市, 분향소 내일까지 연장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의 참상을 영상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씨의 신체 일부가 오는 5월 고인의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 망월동 구 묘역에 안치된다.

5·18 기념재단은 힌츠페터씨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5월 16일 광주 망월동 구 묘역에서 추모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망월동 구 묘역에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고 생전에 그가 남긴 손톱과 머리카락도 이날 안치할 예정이다.

5·18 당시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일본특파원으로 광주의 참상을

현장에서 취재해 세계에 알린 고인은 생전에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다 가족을 잃은 광주 사람의 슬픔을 봤다. 내가 죽거든 광주에 묻어달라’고 주변에 말했다. 지난 2005년 광주 방문 당시에는 자신의 손톱과 머리카락 일부를 봉투에 담아 5·18 기념재단에 남겼다.

지난 1995년 기자회견에서 은퇴한 그는 지난달 25일 독일 북부의 라체부르크에서 투병 끝에 79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한편 광주시는 힌츠페터씨의 분향소를 오는 12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광주시는 고인의 부음 소식이 알려진 지난 3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사흘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추모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대표 도서관 새로 짓는다

광주시가 무등도서관(사진)을 대체할 지역 ‘대표 도서관’을 새로 짓기로 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중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부지와 규모 등 새 도서관의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건립 타당성 분석이 용역 내용에 포함됐지만 시는 도서관 신설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는 북구 무등도서관, 동구 산수도서관, 남구 사직도서관 등 3개의 시립도서관이 있다. 특히 무등도서관은 2010년 광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됐지만 1981년 건립돼 시설이 낡은데다 서고 용량이 한계에 달해 새 도서관 필요성이 절감 제기됐다.

새 도서관 부지는 도서관 건립 요구가 강했던 서구와 광산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존에 요청이 있었던 부지까지 포



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초기 준비단계에서 부지와 규모를 예단하는 것은 다소 선부르다”며 “용역과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비 신청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음악창작소’ 매월 상설공연

아시아레코드 페어·사직국제포크음악제 등 연계...문화콘텐츠 메카 육성

광주시가 설립한 ‘광주음악창작소’가 명실상부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이 공간에서 아시아레코드 페어와 매월 상설공연 프로그램(월 4회)이 열려 매년 개최되는 사직국제포크음악제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음악 산업의 기회에서부터 교육, 창작, 제작, 유통, 소비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광주음악창작소(Peak-music)에서 올부터 상설 공연이 진행된다.

광주음악창작소는 문화수도를 지향하

는 광주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채택한 5대 전략산업(첨단영상, 게임, 음악, 에듀테인먼트, 공예·디자인) 가운데 음악 부문 핵심 인프라다.

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음악창작소 제작지원운영사업 공모에서 국비 4억원을 확보, 신규 사업으로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 프로그램(월 4회)을 진행하게 됐다. 아시아레코드페어, 사직국제포크음악제 등과 연계한 공연도 추진한다.

시는 이들 행사를 바탕으로 광주사직공원 일대 통기타 음악의 거리를 음악 콘텐츠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남구 광주콘텐츠산업진흥센터(옛 KBS)에 있는 광주음악창작소는 지난해 문화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탄생했다. 시는 공간 조성을 위해 국비 10억원, 시비 7억원을 들었다.

이 공간의 특징은 시민과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및 이용 편의를 높여주는 배려가 깃들여 있다는 점이다. 창작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음악 장·제작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뮤지션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장, 녹음실, 스튜디오, 개인연습실, 개인작업실, 뮤지션 레지던스야와 200여 장의 음반과 음악에 대



한 관련한 서적, DVD 등을 비치돼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이후 음악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음악창작소가 활발하게 운영됨으로써 광주시가 5대 전략콘텐츠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는 음악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문대학교

| 초혼 | 추천회원 | 재혼 |
|---|---|--|
|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산동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천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합니다.

면접준비실전과정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감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